

KEB하나은행이 '금연성공 적금'을 출시했다. 금연 성공과 함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매일 1000원부터 1만 원까지 저축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기본금리 연 1%에 금연응원 메시지 확인 또는 하이(HAI)뱅킹을 통해 100회 이상 입금하면 연 0.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보건소와 금연지원센터 등을 통해 금연에 성공했다고 인정받으면 연 1.5%포인트 특별금리를 받는다.

비즈니스 프리즘 | 변화보다 조직안정 택한 신한·KB금융의 포석

리딩 금융 라이벌...조직 공고화로 대격돌

신한·KB, 계열사 CEO 대부분 연임 올해 1~3분기 실적은 신한이 앞서 KB금융, 인수 통해 역전 시도 관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왼쪽)과 윤종규 KB금융 회장. 신한금융과 KB금융이 2020년 경자년 리딩금융사 자리를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리딩 금융사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한금융과 KB금융이 연말 인사에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대부분을 연임했다.

대대적인 조직 변화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선택한 것이다. 2019년 계열사 경영실적이 양호한 점과 경기침체 우려와 초저금리로 불확실성이 높은 2020년 금융환경에 대비한 결정으로 보인다.

KB금융은 20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12월 말 임기가 끝나는 양종희 KB손해보험, 이동철 KB국민카드, 조재민·이현승 KB자산운용, 허

정수 KB생명보험, 신홍섭 KB저축은행, 김종필 KB인베스트먼트, 김해경 KB신용정보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11월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연임된 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내년에 임기 마지막 해인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계열사 대표들과 막판 스퍼트를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한금융도 19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회를 열고 12월 말 또는 2020년 초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사장 8명 중 임명진 신한카드,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서현주 제주은행, 김영표 신한저축은행, 배일규 아시아신탁, 김희송 신한대체투자운용, 남궁훈 신한리츠운용 사장 등 7명의 연임을 결정했다. 이성용 신한DS 사장만 신규 선임됐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연임

에 성공했지만 내년 1월 22일 2015년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관여에 대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조직 안정에 초점을 둔 인사로 풀이된다.

연말 인사로 조직을 정비한 양사의 리딩금융사 전경은 2020년에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1~3분기 실적에서 오랜 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인수 효과로 신한금융이 앞선 만큼 2020년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윤 KB금융 회장이 대형 인수·합병으로 판도 역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침 푸르덴셜생명 등 굵직한 생명보험사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 또한 2분기와 3분기에 금융사의 핵심인 은행 부문 실적에서는 KB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을 앞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존심 회복을 노리는 신한은행의 공세도 펼쳐질 전망이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카카오 '다음 실검 내년 2월 폐지'

카카오는 포털 다음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를 내년 2월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재난이나 속보 등 이슈를 공유하고,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가 최근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순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카카오 측 설명이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는 카카오의 철학과 맞지 않아 종료하고, 본연의 취지와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새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태그에서 제공하는 인물 관련 검색어 서비스(사진)도 23일 폐지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10월 연예뉴스 댓글 잠정 폐지에 이은 뉴스 및 검색 서비스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칠성사이다,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



롯데칠성음료의 칠성사이다 페트병이 기존 초록색에서 재활용이 쉬운 무색(사진)으로 바뀐다.

칠성사이다 페트병 색이 바뀐 것은 1984년 1.5리터 제품이 출시된 이후 35년 만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달부터 500밀리리터 제품을 무색 페트병으로 바꾸고 이후 전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 칠성사이다 페트병은 기존 초록색 라벨 이미지는 그대로 살리고 뚜껑은 기존 흰색에서 초록색으로 변경해 맑고 깨끗한 제품 속성을 강조했다. 라벨 하단에는 브랜드 이름과 상징인 별을 양각으로 새겨 넣어 시각적인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재규어랜드로버, '킵 고잉' 서비스 실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킵 고잉(KEEP GOING)' 서비스를 시작한다. 주행 중 갑작스러운 고장 발생 시 고객이 차질없이 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자동차를 견인 조치하고 교통비까지 지원하는 프리미엄 고객 지원 프로그램이다. 택시, 철도, 항공 등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차량 입고와 출고 당일, 양일간 사용한 교통비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롯데카드 '아임 드라이빙 카드' 출시

롯데카드가 자동차 운전자를 겨냥한 '아임 드라이빙 카드'를 내놓았다. 주유소 4개(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와 요일 2개(평일·주말)를 합한 6개 항목 중 1개를 선택해 5만 원 이상 주유 시 5000원을 결제일 할인한다. 전국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엔진오일 교환 시 2만5000원 현장 할인, 손해보험 업종에서 30만 원 이상 자동차보험료 결제 시 1만 원 결제일 할인을 제공한다. 카드 출시를 기념해 2020년 2월 말까지 신규 회원에게 연회비를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정욱 기자

더 뉴 그랜저, 누적계약 5만 대 돌파... '영 포티' 사로잡았다

(young forty)

현대차 더 뉴 그랜저의 인기가 뜨겁다. 사전계약 개시(11월 4일) 이후 2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누적계약 5만 대(5만2640대, 12월 20일 기준)를 돌파했다. 기존 그랜저가 전통적인 성공의 방정식을 앞세우며 중장년층을 겨냥한 차였다면, 더 뉴 그랜저는 젊은 감각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과 첨단 편의사양을 앞세우며 30~40대를 겨냥했다.

구매고객을 살펴보면 연령대와 성향에서 확실한 변화가 생겼다. 기존 그랜저는 50대 고객 주류를 이루었지만, 더 뉴 그랜저는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인 '영 포티'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사전 계약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40대(31%)가



현대차 더 뉴 그랜저는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인 '영 포티'에게 특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 현대차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29%), 30대(21%), 60대(15%)의 순이었다. 30대와 40대의 비율이 기존보다 늘어났고, 50대와 60대는

기록을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모델 비중이 32.1%나 차지했다. 차량 색상도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기존 그랜저(IG) 고객은 중후한 미드나잇 블랙을 선택하는 비중이 39.5%였지만, 더 뉴 그랜저 고객은 30.7%로 줄었다. 반면 화이트 크림, 녹턴 그레이, 블랙 포레스트, 글로잉 실버, 옥스퍼드 블루 등 다양한 컬러를 선택했다.

편의·안전 사양 선택에서도 영포티의 성향이 드러났다.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 2세대 스마트 자세제어 시스템, 후진 가이드 램프 순으로 선택해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인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누나 조현아 전 부사장의 선전포고...한진그룹 '남매의 난' 촉발

조원태 회장 비판...경영참여 시사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결과 관련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한진그룹 오너의 갈등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3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선전의 유혹과 달리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간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

로 일관한다"고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님의 상속인으로서 유혹에 따라 그룹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경영참여 및 독자노선을 걸을 것을 시사했다.

이제 문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선전포고'로 불붙은 '남매의 난'이 어디까지 확산되느냐다. 현재 한진칼의 지분은

조원태 회장이 6.46%, 조현아 전 부사장이 6.43%,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6.42%다.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지분은 5.27%다.

남매간에 경영권 공방이 벌어지면 다른 주주와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한진칼 1대 주주인 KCGI(15.98%), 텔타항공(10%), 반도건설(6.28%), 국민연금(4.1%) 등 대주주들이 이번 사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사다. 재계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

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가 경영권 행패를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진그룹은 23일 오후 "그룹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고객 및 주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진그룹 측은 "회사의 경영은 회사법 등 관련 법규와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에 의거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금번 논란으로 경영의 안정을 해치고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오리온그룹, 임원 인사 단행...이승준 연구소장 사장 승진

오리온그룹이 23일 2020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한국 법인은 이승준 연구소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신설한 글로벌연구소장으로 선임했다. 1989년 오리온에 입사한 이

사장은 상품개발팀장, 중국 법인 R&D부문을 거쳐 2015년부터 오리온 연구소장을 맡아왔다. 포북집, 마켓오네이저 오!그래놀라, 생크림파이, 치킨팝, 단백질바 등을 히트시켰고, 2017년부터 글로벌 R&D를 총괄



이승준 사장

했다. 이밖에 박성규 재경부 문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해 지원본부장을 맡는다.

베트남 법인은 김재신 연구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전무로 승진시켰다. 러시아 법인은 생산부문장 박종을 상무로, 오리온제주용암수에서는 운영총괄 허철호

상무를 각 법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오리온은 대법제를 도입하는 조직개편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 법인을 16부문 60팀에서 4본부 17팀으로 개편하고 지원본부를 신설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법인도 4~2개 본부 체제로 개편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신한지 기자 mythuki@donga.com